

두 사람

*

한 사람은 언제나 1인칭이었다. 그는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그가 느낀 것을 확신했다. 자신이 자신이라는 것에 자신있었다. 또 한 사람은 그보다 2인칭, 혹은 3인칭이었다. 그는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그가 느낀 것을 의심했다. 자신이 자신이라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모두 무언가를 보여주곤 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은 기쁘게 일했다. 자신을 내비추는 일에 그는 익숙했고, 본인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자신을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적 성장에 따라 만들수 있는 무언가가 또 생긴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는 사방이 흰 빛인 공간에 본인의 삶을 즐겁게 심었다. 그는 자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원했다. 기억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지도 모른다.

또 한 사람은 괴롭게 일했다. 자신을 내비추는 일이 그는 불편했는데, 그것이 정말 자신인지 알 수 없었으며 만약 그것이 그 자신, 혹은 자신의 분신인 게 분명하다면, 그 또한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사방이 흰 빛인 공간에 본인의 삶을 힘겹게 심었다. 생기있는 관객들이 들어와 본인이 만든 것 사이를 돌아다닐 때면 스스로에게 느끼는 부재의 감각이 짙어졌다. 사실 그는 그렇게 사라지길 원했다. 어쩌면 자신을 흐리기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지도 모른다.

*

흥미롭게도, 두 사람 다 죽음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생명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자명한 사실이 꿈쩍했다. 그가 죽음에 대해 아무리 생각하고, 삶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다고 해도 죽음이 그 끝에 자리한다는 사실만은 거두어낼 수 없었다. 자신을 아무리 자신하더라도 제거될 수 밖에 없는 운명, 죽음은 그에게 씌워진 비극의 굴레였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죽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기리며 해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란다. 그는 그렇게라도 삶에 남아있고 싶다.

또 한 사람은 생명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자명한 사실에 무던했다. 사실 그는 자신을 죽은 자처럼 느낄 때도 많았다. 그는 종종 사라지고 싶을 때마다 자신의 몸이 미생물과 세포로 분해되어 공기 중에 퍼지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고는 이상하도록 평온한 마음으로 그 조각들을 모아 자신을 다시 부여잡기도 했다. 진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는 마치 그가 애초에 없었던 사람인 양,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삭제되기를 바란다. 어쩌다가 삶에 남긴 일말의 자취마저 뿔뿔이 흩어져 소멸되기를 원한다.

*

말하자면, 둘 모두 삶과 죽음의 사이 공간에 떠다니는 유령처럼 희뿌연다. 그리고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도 이제 모르겠다.

*

One person was always in the first person: he was absolutely sure of what he saw, what he heard, and what he felt. The other one was less sure of himself: he was second or third person oriented. He constantly doubted what he saw, heard or felt. He was never sure of himself.

*

Curiously enough, both of them were eager to reveal their true selves. As expected, one person was used to putting himself out there, gladly willing to share his thoughts and emotions. He found it satisfactory that there was always something new to create as he continuously evolved even after exhausting himself. He placed himself in a space filled with bright white light, hoping to be remembered for generations to come. Perhaps, that was the whole reason behind his creative endeavors.

The other one worked in pain. He was uneasy about displaying his work in public because he couldn't be sure of the work's emotional authenticity. Even if it was rightfully his, he felt the work was painfully insignificant. With reluctance, he placed himself in a brightly lit white space. Whenever a lively audience would wander among his creations, his sense of his own absence intensified - which was exactly what he wanted. Perhaps, he created things to further diminish his own presence.

*

Interestingly, both men were overly conscious of death. One of them dreaded the common fact that all lives must come to an end. No matter how much he thought about it, he couldn't escape the reality of death. No amount of success in life could protect him from it. Not even his haughty self-assuredness would be able to save him from his destiny. Death was his ultimate weakness. So, if he were to pass away one day, he hoped that the entire world would mourn his death, honor his legacy, and speak of him and his achievements for years to come. That way, he could live on after his death.

Another person had a rather nonchalant attitude about the self-evident truth that all lives must end in death. In fact, he frequently saw himself as already dead, imagining his body disintegrating into a myriad of microbes and cells, spreading through the air, whenever he felt a strong urge to disappear. This thought brought him a strange sense of calm, knowing that he could put together those scattered pieces and resume his day. If he were to actually die, he wished that he would be completely erased from everyone's memory, as if he had never existed. He wanted every trace of evidence of his life to perish with him.

*

In summary, both of their existences are, in a way, as hazy as ghosts lingering in the realm between life and death. And it is becoming less and less clear whether the two men are really two separate individuals, or one, or even many.